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빨간불'... 불안정 경영환경 지속

부산상공회의소, 250개社 대상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조사 BSI 81 기록... 6분기 연속 부진



부산상의 전경.

고금리·고물가 및 내수 부진 장기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지면서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분기 연속 경기 부진이 전망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1'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경기부진 전망이 이어졌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수출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환경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형태별로는 수출기업 '98' 내수기업은 '76'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여파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4분기에는 수출기업 대비 내수기업의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가 하락, 합성고무 및 도로 수요가 증가한 화학·고무(115)와 친환경 선박 수요증가 및 조선업 호황에 힘입은 조선·기자재(100)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부

진이 예상된다. 신발(67), 의복·모피(67), 음식료품(60) 등 소비재 업종은 원자재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기·전자(95)는 AI 등 신산업 투자증가에 따른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 등에 우려를 표하며 4분기 약보합을 전망했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82), 영업이

익(83), 설비투자(90), 자금사정(90) 등 조사 전 부문에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연초 계획한 목표실적을 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52.0%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47.6%)에 비해 4.4%p 증가한 것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 변동, 금리인하 지연 등 경영환경에 부정적 요인들이 지역기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부각 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7.2%가 '큰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일시적 실적저하(20.4%)와 경쟁력저하(9.2%)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31.2%에 달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율 변동 등 금융리스크(24.7%), 에너지 조달비용 증가(22.6%), 원자재수급(18.3%), 재고 관리 및 물류비 증가(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글로벌 해양치유 도시로 도약

완도군이 새로 개발한 도시 브랜드인 '해양치유 완도' 선포식을 갖고 세계를 치유하는 도시로 비상한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과 치유의 섬 조성 전략, 해양바이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등 국책 및 SOC 사업, 대규모 축제·행사 등 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해양치유산업의 대표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치유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김수출 1兆 시대 '김밥 페스티벌'

전남도가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맞아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연다.

전남도는 김 관련 축제를 통해 K-김의 80%인 전남산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전남산 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마른김 품질등급제와 국내·외 바이어가 전남에서 좋은 김을 구입토록 운영하게 될 국제 마른김거래소 시행에 앞서 전남산 김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농촌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 지역에서 읍내순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15일 시범운행한다.

하동읍 주민들은 병원, 시장, 관공서 등을 방문하기 위해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에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다.

군은 지난 1년여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으며 총 20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차고지와 승강장, 스마트폴, 안전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지역에 맞는 집간을 겸비한 자율주행차 제작을 통해 시범지구 운행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UN평화축제, 오는 19일 개막

부산 남구는 오는 19~20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UN평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억의 미래, 평화를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기억, 공감, 화합을 테마로 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19일) 오후 2시30분부터 평화공원 도로에서는 유엔 참전국 기수단, 군악대, 외국인 공연팀, 다문화가족팀, 태권도, K팝 댄스팀 등 평화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이찬원, 이상밴드 등이 출연하는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강진군, 外人 계절근로자 이탈율 0%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품협현과 오랜 기간 교류·협력 큰 영향 안정적 근무환경 위한 지원책 마련

강진군이 올해 추진한 공공형 베트남 계절근로자 시책이 순항하고 있다. 강진군은 공공형 20명, 농가형 결혼이민자 가족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이 0%라고 밝혔다.

이런 성과는 강진군과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품협현과의 지난 10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이 가장 큰 바탕이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체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번기 동안 일손이 부족한 강진군의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는 베트남 품협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4월 20명의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안착을 위해 입·출국 교통비와 통역비를 지원하고 2동의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이들은 5개월간의 정식 인력계약을 맺었고 대다수는 3개월의 추가 작업을 확정 짓고 내달 22일까지 농작업에 임한다.

군은 지난 베트남 품협현 양해각서(MOU) 체결과 재입국 추천 제도, 성실 근로자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고흥군, 우주항공 중심도시 위상 알린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참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엑스포과학공원 등에서 열리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린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전국 최초로 양성한 우주항공해설사들과 함께 매년 5월에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홍보하고, 실제 우주에서 사용된 우주인 용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이 우주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소유즈 우주선의 외피, 우주식량, 우주유영장비, 비상 생존장비 등 국내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실제 우주 장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8개의 존으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30종이 넘는 우주 물품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우주항공해설사들이 체험 진행을 맡는다. 고흥우주항공해설사들은 방문객들에게 우주와 항공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며, 실제 우주항공 관련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이 10일 순천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강소지역기업 육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합의

지역갈등 해소 등 '가장 이상적 대안'

'의과대학 불모지' 전남의 30여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남도, 목포대, 순천대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26학년도 첫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지역갈등 해소 등에 '통합의대'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통합의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난 10일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전남 국립통합의대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1도(道)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며 양대학에 협조를 요청한 뒤 "대학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전남 미성년자 주택매입 '96채' 확인

6년간 매수금액 100억4600만원



는 43채, 61억5600만원이며 전남은 53채, 38억900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채 ▲2순위 서울 709채 ▲3순위 인천 294채 ▲4순위 부산 175채 ▲5순위 충남 156건채 이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10대 미만의 나이에 불과하고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주택 매입이 3000채를 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96채로, 매수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이 96채를 구매, 금액이 100억 46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광주